

“인도 코로나 대확산은 ‘퍼펙트 스톰’”

〈초대형 복합위기〉

WHO “변이가 유일원인 아나”... 대규모 모임·낮은 접종도 원인
CNN “누적 확진자 정부 발표보다 30배 많은 5억명 이를 수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인도의 최근 코로나19 대확산은 대규모 모임, 낮은 백신 접종률, 전파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어우러진 ‘퍼펙트 스톰’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타릭 아사레비치 WHO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이같이 분석하며 변이 바이러스를 인도 상황의 유일원 원인으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도에선 ‘이중 변이’에 이어 ‘삼중 변이’까지 발견돼 각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아사레비치 대변인은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 내 확진자 급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최근 대규모 집회가 열린 점 등 다른 요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에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코로나19 환자들이 대거 병원을 찾아 인도 보건 체계의 부담을 키운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환자는 전체의 15%에 그친다며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 따르면 26일 인도에

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31만 9435명 나왔다. 직전일(35만 4531명)보다 감소했지만 지난 21일 이후 9일 연속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26일 신규 사망자는 2764명 나와 지난 20일 이후 7일 연속으로 2000명대를 기록했다.

28일 오전 0시 10분 기준(그리니치 표준시·GMT) 인도의 누적 확진자는 1798만 8637명, 사망자는 20만 1165명이다. 인도는 지난해 9월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에 육박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올해 2월 1만명대 아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약 두 달동안 확진자가 폭증해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문가들이 지난 2월엔 면역력을 지닌 인도 국민 비율이 높다고 진단했지만, 최근 들어 이 비율이 생각보다 낮다고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만 해도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1~2만명대로 감소하자 일각에서는 그 이유를 놓고 집단면역이 형성됐기 때문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초기 확산은 저소득층 위주

로 나타난 반면 최근에는 외부 활동을 늘린 부유층도 대거 감염된다고 분석한다.

한편 CNN방송은 팬데믹 이후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인도의 코로나19 실제 누적 감염자수가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무려 5억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감염자수는 인도 정부가 발표한 누적 감염자수보다 30배나 더 많은 5억여명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미 한참 전부터 인도의 의료진, 과학자들은 열악한 인프라, 검사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수 통계가 실제 수치와 엄청난 괴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했다.

뉴델리 질병역학·경제정책센터의 라만 락스미나리안 소장은 “확진자와 사망자수 모두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지난해에도 약 30건의 감염 중 1건만 검사를 통해 집계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숨바 스와미나탄 박사는 인도가 하루에 200만건의 검사를 하지만 확진율이 약 15%, 텔리와 같은 도시에선 30%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검사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27일(현지시간)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저항의 표시로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미얀마 통합정부, 공무원 ‘반군부 저항’ 독려

“파업중인 공무원에 급여 지급”

군부는 체포·해고·관사퇴거 압박

미얀마 군사정부에 맞서 출범한 임시정부적인 국민통합정부(NUG)가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주겠다고 밝히는 등 시민불복종운동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8일 현지 매체인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국민통합정부 재무장관인 락 쉐인 양은 인터뷰에서 시민 불복종운동에 참여한 공무원 급여 예산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파업중인 공무원들의 명단을 취합중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급여 재원은 미얀마 시민들의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미얀마 군부에 맞서고 있는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를 포함한 민주진영은 군사정권에 맞서기 위해 소수민족 인사들을 요직에 대거 포진시킨 국민통합정부를 지난 16일 구성했다. 국민통합

정부는 미국이 군부 쿠데타 이후 동결한 자국 내 미얀마 자산에 대한 접근도 시도할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미얀마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예치한 10억달러(1조 1135억원)를 동결했다. 락 쉐인 양 장관은 “동결 자산은 군부의 의해 삶이 파괴된 시민들을 돕기 위해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얀마 전체 공무원 수의 절반 가량인 20만여명이 파업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이에 군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고, 체포, 관사 퇴거 등을 거론하면서 저항운동 참여를 막고 있다. 파업대열에 동참한 의사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부모 등 가족에게 압력을 가하고 체포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군정 관료는 지난 27일 남서부 예아와디 지역의 파테인 마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파업에 동참한 의사들의 부모들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연합뉴스



인도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위기를 맞은 가운데 27일(현지시간) 비하르주 주도 파트나에서 주민들이 산소통을 충전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 아동 11%, 완치 7개월 후에도 피로 호소”

수면장애·후각상실 등 후유증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한 아동이 7~9개월 후에도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 중증급성호흡질환·신생감염병 컨소시엄(ISARIC) 연구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려 지난해 4~8월 입원한 러시아 어린이 518명 가운데 24%가 퇴원 5개월 후에도 후유증을 호소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후

유증 종류는 피로감(10%), 수면장애(7%), 후각상실(6%) 순으로 많았다. 연구에 따르면 퇴원 직후 피로감을 호소한 어린이는 16%다. 7개월 후에도 같은 증상을 겪은 어린이는 11%로 나타났다. 후각상실을 겪은 어린이는 퇴원 직후 8%였다가 7개월 후 6%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나이가 많은 어린이일수록 피로감을 호소할 위험이 크고 알레르기 이력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를 이끈 다니엘 문블리트 러시아 세체노프

의대 교수는 “피로감은 가장 흔한 증상인데 하루 이틀만 피곤한 게 아니다”라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구에 참여한 프랜시스 심프슨 영국 코번트리대 심리학 교수는 후유증을 일년 넘게 앓는 아동도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웨덴과 이탈리아 등에서도 코로나19에서 회복한 아동이 후유증을 앓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재일 한인학생 30% “국적 이유만으로 언어폭력 경험”

39% “주택 관련 계약 거절 당해”

일본 학교에 다니는 한국·조선 국적의 고교생과 대학생들이 단순히 국적을 이유로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학교에서 공부하는 한국·조선 국적 학생을 지원하는 ‘조선장학회’는 2019년 12월부터 작년 2월 사이에 장학금을 받는 고교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차별을 주제로 한 설문 조사를 벌였다. 과거 3년 이내에 일본에 살면서 차별을 경험했는지를 묻은 이 조사에는 일본에서 태어난 학생(77%)과 한국 출신(23%) 학생 등 총 1030명이 응했다.

고도통신이 28일 보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적 때문에 언어폭력을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

자가 30.9%에 달했다. 언어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네 나라로 돌아가라”거나 “북한 스파이(간첩)”라는 등의 욕설을 들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또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어조를 바꾸거나 무시하는 일본인도 있었다는 답변이 나왔다.

언어폭력을 가한 주체(복수 응답)로는 48.1%가 같은 학교의 일본인 학생을 꼽았다. 일본인 교사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자도 10.1%였다.

이 밖에 아르바이트하는 곳의 손님(16.4%)이나 일본인 상사·동료(9.1%)의 차별적인 언동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언어폭력 외의 차별 사례로는 주택 관련 계약을 거절당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람이 39.4%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